스타들 "투표하고 왔어요"

#전현무#투표인증#꽃길

#트와이스 나연·지효 생애 첫 대선 투표 "앗! 신분증"

#최수종·하희라#미래 위해

최수종 부부·전현무·트와이스 등 투표 인증샷 올리고 투표 독려 메시지 전달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 스타들이 잇따라 투표 인증샷을 공개했다.

배우 정우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강남구 삼성1동 제3투표소 앞에서 찍은 셀카 사진을 공개했다. 또 류준열은 얼굴 사진 대신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고 나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았다.

최수종-하희라 부부도 서초구 방배4동 제2투표소 앞에서 함께 찍은 셀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놓았다. 최수종은 "#투표#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소중하고 아름다운 권리#선한 영향력#축복의 통로#사랑#감사#최수종#하희라"라는 글을 함께 띄웠다.

방송인 전현무도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았다. 그는 성동구 금호4가 제1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꽃길만 걷자 ^ ^ ~ 스케줄 전 벼락투표♡ 다들 투표하세요 #전현무#대선#대통령#투표인증#꽃길"이라고 적었다.

개그맨 김원효-심진화 부부도 인증샷 대열에 참여했다. 김원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심진화와 함께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김원효는 투표 도장을 찍은 손가락을 공개했다.

김원효는 "여러분~조금 있으면 밝은 미래가 다가온대요 ^ ^#투표 안하면 #안돼~~~~~~떳떳한 #양천구 #주민 #설레임 #선거 #공정선거#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투표 #의무 = #마녀김밥가보기 ㅋ"라고 적었다.

이들 외에 레인보우의 지숙, 개그우먼 김지숙 등도 투표 인증샷 대열에 동참했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2)과 지효(20)는 강남구 청담초에 마련된 투표장을 찾아 생애 첫 대선 투표를 했다. 이중 지효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는 것을 잊어버려 매니저가 급히 신분증을 갖고 오기도 했다.

트와이스의 정연(21)은 중랑구 면목동 중곡초에 마련된 면목4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배우 박신혜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투표한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박신혜는 "어버이날 아부지랑 낚시하고 돌아와서 (오늘은) 투표하기. 잊지 말고 꼭 투표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가수 겸 배우 유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투표완료!! 가족모두 아침 일찍 다녀왔습니다~ * ^ ^ * 우리 모두 투표하기 #투표합시다"라는 글과 함께 투표 인증샷을 남겼다.

다이나믹듀오 최자와 개코도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투표 인증샷을 남겼다. 최자는 투표 도장을 손바닥에 찍은 사진을 올리고 "Let's go!"라고 썼다. 개코는 손등에 투표 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SBS TV 선거방송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7시20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 양희은과 공연하는 장미여관의 육중완은 인스타그램에 양희은과 연습하는 사진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했다.

육중완은 "투표하셨나요? ㅎㅎㅎㅎㅎ 이사 할 때 비오면 대박 난다던데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도 대박날 듯ㅎㅎㅎ 조금 있다 양희은 선생님과 공연합시다!! 광화문에서 만나요~~^ ^#투표 #선거 #양희은 #장미여관"이라고 썼다.

가수 주영훈-배우 이윤미 부부는 딸과 함께 서초구 잠원동 제6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투표를 독려했다.

주영훈은 "민주주의의 시작은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디 새로운 대통령 시대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나라, 교육 때문에 엄마들이 허구한 날 모여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국민들이 열 받지 않는 나라, 선진국을 부러워하지 않는 나라, 분열없이 하나 되는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라고 바랐다.

배우 임수향도 인스타그램에 "아침일찍 촬영가기전 한표~ 투표하세요 #국민의권리"라는 글과 함께 한남동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빌보드 뮤직 어워드' 초청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 저스틴 비버 등과 경쟁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음악시상식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초청됐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오는 21일 오후 8시(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열리는 '2017 빌보드 뮤직 어워즈'(The 2017 Billboard Music Awards)에 초청받아 참석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부문 후보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스, 아리아나 그란데, 션 멘데스 등 세계적인 팝스타와 경쟁한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앨범 및 디지털 노래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공연 및 소셜 참여 지수 등 데이터와 지난 1일부터 진행된 글로벌 팬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방탄소년단은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초청받다니 정말 꿈만 같다"며 "모두 전 세계 팬 덕분이다. 시상식에 초청받은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 참석에 앞서 레드카펫 행사에도 참석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특집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특집 MBC 뉴스투데이	00 2017 대한민국 새로운 시작
7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50 MBC 뉴스특보	
8	00 KBS 뉴스특보	00 특집 19대 대통령 당선인		
9		00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 40 여유만만		
10		40 지구촌 뉴스		00 새로운 시작 국민과 함께
11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재)	00 19대 대선 특별 좌담 장미대선, 무엇을 남겼나	
12	00 특집 KBS 뉴스 12		00 특집 MBC 정오뉴스	
1	00 특집 19대 대통령 당선인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속보이는TV 인사이드(재)	00 TV속의 TV	
2	00 KBS 뉴스특보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00 꾸러기 식사교실 30 프리파라 2	00 특집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M	
4	00 특집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스페셜
5	00 KBS 뉴스특보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2TV 생생정보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 55 특집 MBC 뉴스데스크	05 날씨와 생활 1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7	00 KBS 뉴스특보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닥터 365 20 특집 SBS 8 뉴스
8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특별 대담 새 정부에 바란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특집 KBS 뉴스 9			
10	00 특별대담 새정부 출범, 대한민국의 과제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군주〉	00 드라마 스페셜 〈수상한 파트너〉
11	30 KBS 뉴스 40 문화의 향기	10 추적 60분 〈대통령의 탄생 4주의 기록〉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대선특집 다큐멘터리
12	3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0 MBC 뉴스 24	20 나이트라인 50 스타일 팔로우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동시베리아의 젖줄 레나강 발원지를 찾아서〉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뚝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몰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한 알 탕수육〉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탐험대
15:20 마샤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뚝딱맨(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어벤져스: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컬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문명의 교차로 파키스탄 3부 스와트 간다라 문명을 꽃 피우다〉
21:30 한국기행 〈전설의 한 끼 3부 사랑의 묘약〉
21:50 EBS 다큐 프라임 〈강대국의 비밀3부 -세계제국 몽골〉
22:45 극한직업 〈대장간 사람들〉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아직도 가슴 뛰는 그곳, 무대 -연극배우 손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0일(음 4월 15일 丁酉)

子 48년생 생기기는 하나 만족시킬 정도까지는 않을 것이니 큰 기대는 하지 말라. 60년생 방심하면 놓칠 수도 있다. 72년생 미리 준비 해두어야 목전에서 당황하지 않으리라. 84년생 오해로 인한 시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8, 94

丑 49년생 임시적인 처리는 곧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니 장기적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옳다. 61년생 실력부터 키우고 볼 일이다. 73년생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다. 85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48

寅 50년생 대동소이하니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62년생 흑과 백으로 명암을 분명히 하리라. 74년생 번거로우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도 괜찮다. 86년생 옛 것은 버리고 새것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 행운의 숫자 : 30, 41

卯 51년생 마무리까지 잘 한 후에 결과를 기다리자. 63년생 예봉을 피하는 것이 적절하다. 75년생 우회하면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다. 87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24

辰 52년생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장이 많을 수도 있다. 64년생 기대하여 왔던 것이 와해하면서 허탈해 하는 형상이다. 76년생 인재로 인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느니라. 88년생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면 차치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4, 31

巳 53년생 추진은 되겠지만 성공과 실패 가능성의 비율은 반반이다. 65년생 혼잡한 상태에서 바쁘게 진행될 것이니 집중하여라. 77년생 사소한 흠을 주의하라. 89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설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95, 11

午 42년생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살펴보자. 54년생 드디어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66년생 모두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78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라. 90년생 급히 선회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2, 82

未 43년생 활로가 트이게 된다. 55년생 발전적인 충돌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감안 하자. 67년생 편향을 버리고 중용으로써 삼가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79년생 고귀함을 이루는 마당이 펼쳐질 수 있다. 91년생 실속을 차려야 할 때이니라. 행운의 숫자 : 41, 54

申 44년생 상대의 기대 심리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56년생 대세를 띠는 것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음을 알라. 68년생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보이리라. 80년생 흙 속에 묻힌 옥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90, 87

酉 45년생 전환점을 맞이할 갈림길에 서 있다. 57년생 종류와 형태에 따른 변수의 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69년생 시작할 때 상징적인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81년생 부작용의 원인이 해소되어야 생산적으로 전환된다. 행운의 숫자 : 69, 13

戌 46년생 소신과 주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58년생 향후의 달성보다 현재의 유지에 신경 쓸 때다. 70년생 피하려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82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자리에서 길인을 만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61

亥 47년생 합리성이 발전을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59년생 해는 없으리라고 보니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다. 71년생 약간만 신경 쓴다면 머지않아서 호전되겠다. 83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89, 1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